

# allure

Beauty & Style Expert

## VALENTINE SPECIAL

남자친구와 함께 하는 밸렌티날  
도전 밸렌타인 커플 톱  
남자친구를 위한 선물 04

손이 예뻐야 미인  
성형 후에 하는 레이저업  
최고의 아이크림을 찾아서  
전문가의 보습법

봄/여름 패션  
프렌드 키워드  
꽃장 정리의 장식  
아름박을 입는 사람들  
속옷 은밀하게 대답하게

[입부어 코라지]

새롭고 미운 사이  
여자가 좋아하는 섹스  
인게 하는 다이어트

피해크도 한 걸음부터  
진정의 신이 도전했다

공복의 욕망지  
미요코가  
남편 퀘스트로 함께 갔다

# ALL ABOUT BEAUTY

이탈리아 2014년 봄을 정당한 루이 비트로, 새로운 패션에  
최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로부터 온 유명한 루이 정복을

# Worldwide Beauty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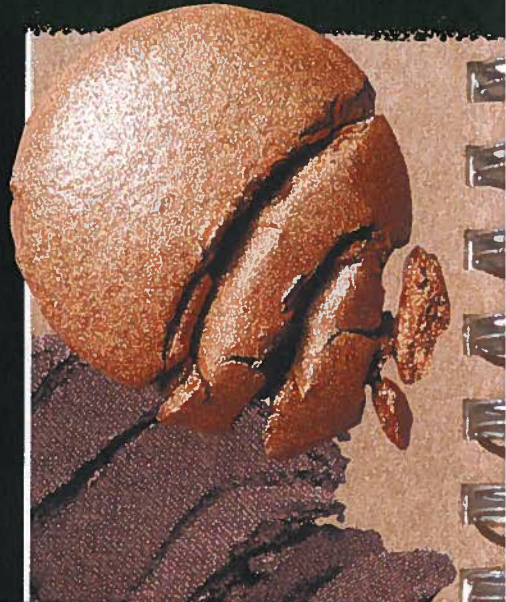
신제품 광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용후기가 올라오고, 이메일이 마르고 나온 립스틱이 어느 브랜드의 것인지 방송 후 몇 시간 뒤엔 업데이트되는 일쯤이야 전 세계 뷰티 블로그에서 흔하게 मिल이진다. 1111급의 빠른 뷰티 정보를 자랑하는 전세계 11인의 뷰티 블로거와 짐수, 그녀들이 추천하는 뷰티 아이템과 쇼핑 장소, 새로운 트렌드를 파헤쳤다.



**에스판 선더스 | 영국**  
[makeuptemple.blogspot.com](http://makeuptemple.blogspot.com),  
[instagram @mysticalmakeupbeauty](https://www.instagram.com/mysticalmakeupbeauty)

**블로그** 시작한 계기 메이크업과 화장품에 대한 무한애정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블로거**로 산다는 것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뷰티 브랜드의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고 많은 신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포스팅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건 힘들지만 말이다. 블로그를 관리하는 건 아이들 돌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블로그**의 강점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말한다. 그것이 내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의라고 생각한다. 뷰티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특히 메이크업 팁과 화장품 평가에 공을 들인다. **화장품** 평가 기준 보통 한 제품을 몇 주에 걸쳐 테스트하면서 설명서에 적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피부에 자극은 없는지, 내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다.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 나처럼 햇빛에 그을린 듯한 피부를 가진 여성에게 어울리는지도 확인한다. **추천 뷰티 제품** 로즈 골드 톤의 12가지 아이섀도로 구성된 어반 디케이의 네이키드 3 팔레트와 무아(MUA)의 프리티 파스텔스 팔레트 네이키드 3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팔레트라 생각한다. 나스의 쉬어 매트 파운데이션도 좋아하는 아이템. 피부톤이 까무잡잡한 사람에게 딱 맞는 색상을 찾을 수 있고 커버력도 적당하다. 퓨어 미네랄즈의 코렉팅 프라이머와 맥의 스튜디오 퍼니쉬 컨실러도 추천한다. **화장품 쇼핑 장소** 보통 한 달에 20개가 넘는 신제품을 써본다. 필요한 제품을 검색하고 바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구매한다. 런던의 헤르즈나 리버티, 셸프리지, 하비 나폴스 같은 백화점에도 종종 들른다. 리버티는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멋진 제품이 가득하다. 니치 향수 브랜드가 가득한 향수 색선도 필수 코스다. 시슬리, 아베다, 더달로자카, 드골레오의 페이스 트리트먼트와 캔들 마사지 등을 받을 수 있는 뷰티 트리트먼트 룸도 꼭 방문하길 관심 있는 뷰티 브랜드 나스 나스는 블러셔를 비롯해 대부분의 제품이 모든 피부톤에 잘 어울린다. 나스의 오르가즘은 꾸준히 구입하는 유일한 블러셔다. **파우치 속 아이템** 다음의 어디트 익스트림 립스틱과 미스 다울 워터 오드투왈렛, 나스의 블러셔 토리드, 바비 브라운의 트래블 사이즈 메이크업 브러시, 생츠퍼리 스파의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트래블 사이즈 모이스처라이저. **2014년 봄/여름 뷰티** 트렌드 스트레이트 헤어와 블랙 아이라인, 그을린 피부와 산호색 입술, 스타드 장식을 이용한 네일 아트, 카카색과 갈색 네일 에나멜, 파스텔톤의 아이섀도. 좋아하는 뷰티 스페셜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웨인 고스와 모델 케이트 모스 뷰티 정보망 메이크업에 관한 정보는 바비 브라운의 (메이크업 매뉴얼), 스킷 비네스의 (About Face), 젤마

키드의 (Makeup Secrets) 같은 책에서, 헤어 관련 정보는 (Estetica), (Professional Hairdresser) 같은 매거진에서 주로 얻는다. 멋진 사진과 고급 정보가 가득한 [www.beautylish.com](http://www.beautylish.com)도 즐겨 찾는다. K-Beauty에 대해 한국 브랜드의 BB크림은 품질이 뛰어나다. 특히 미샤의 퍼펙트 커버 비비크림을 좋아한다. 에뛰드하우스와 헤라 제품에도 관심이 많다.



**크리스텔 스킷 | 캐나다**  
[www.crystalcandymakeup.com](http://www.crystalcandymakeup.com),  
[instagram @crystalcandymakeup](https://www.instagram.com/crystalcandymakeup)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화장품에 중독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블로그를 만들었다. **블로그**의 강점 기능하면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제품의 일부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니까. 메이크업 제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한 전후 사진을 가능하면 꼭 올리려고 한다. 제품의 색상과 질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사진에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제품을 실제로 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 평가 기준 신제품을 소개할 때 성분과 효과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광고에 숨겨진 속단수를 들추기도 하고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비슷한 군의 제품과 비교하면 제품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메이크업 제품은 발색력과 지속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데, 다양한 도구로 여러 번 테스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추천 뷰티 아이템** 부르조아의 헬스 믹스 세럼 파운데이션, 최고의 파운데이션 중 하나다. 인색을 밝게 하고, 타고난 아름다운 피부처럼 보이게 한다. 레브론의 프로페셔널 뉴트리 컬러 크림, 메이크업 포에버의 풀 커버 컨실러, 스킨디나비아(Skindinavia)의 노 모어 샤인 메이크업 스프레이도 추천한다. **화장품** 쇼핑 장소 매달 30여 개의 신제품을 사용한다. 화장품 구매의 99%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프라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 드럭스토어 중에는 사사(Sasa)를 좋아하는데 캐나다에 매장이 없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다. 관심 있는 뷰티 브랜드 아워글래스(Hourglass), 몇 가지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하나같이 다 효과가 좋았다. 품질이 좋고, 메이크업 제품의 색상은



물론 패키지 디자인도 우아하다. **2014년 봄/여름 뷰티** 트렌드 메트하게 마무리되는 오렌지색 립스틱은 이번 시즌에도 유행할 것 같다. 빛나는 피부 표현과 간결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 같다. 뷰티 정보망 주로 뷰티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많이 얻는다. 메이크업 아티스티아(뷰티 블로거인 린다 할버그의 블로그([www.lindahallberg.com](http://www.lindahallberg.com)))를 가장 좋아한다. 그 밖에 [www.makeupalley.com](http://www.makeupalley.com), [www.spektra.net](http://www.spektra.net), [www.temptalia.com](http://www.temptalia.com)도 자주 찾는다. K-Beauty에 대해 한국 브랜드 중 스킨79에 꼭 빠져 있다. 슈퍼비블레쉬 밤 트리를 평년 BB크림을 사용하는데 정말 좋다. 한국 브랜드를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패리스 B | 말레이시아**  
[www.mywomenstuff.com](http://www.mywomenstuff.com)  
[instagram @ parisbmws](https://www.instagram.com/parisbmws)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2007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다. 사용해본 화장품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당시 말레이시아에 화장품 사용후기를 쓰는 블로그가 많지 않아 큰 호응을 얻었다.

**블로그의 강점** 화장품 사용후기에 치우치지 않고 뷰티와 패션, 일상에서의 소소한 이야기 등 여성의 관심사를 폭넓게 다룬다. 워트 있고 흡인력이 있는 글을 쓰지만, 제품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격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수년간에 걸쳐 단단한 커뮤니티가 형성돼 댓글을 통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화장품 평가 기준** 제품이 소비자에게 약속하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와 비슷한 군의 제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추천 뷰티 아이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엔티피더의 그레이프 씨드 버터. 데이용으로는 오리진스의 메이크 어 디파런스 플러스+ 수분 트리트먼트와 시세이논의 파펙트 유보이 선스크린을, 나이트용으로는 다올의 캠프 토탈 인텐시브 나이트 리스토러티브 크림을 추천한다. 베이스 제품으로는 무나솔의 스킨 모델링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나스의 래디언트 크리미 칸살러를 애용한다. **파우치 속 아이템** 파우치에는 립 제품만 넣고 다닌다. 최근에는 켈랑의 루즈 & 글로스 당메르, 다올의 다올 루즈를 바른다. **화장품 쇼핑 장소** 말레이시아 중심가에 문을 연 세포라, 뷰티 팀 최근 율런징 밤 제품을 여러 개 테스트해보고 있다. 메이크업을 잘 지우고 무엇보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이 많아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던 좋을 것 같다. 2014년 **봄/여름 뷰티 트렌드** 파스텔톤. 특히 다양한 핑크 컬러. **뷰티 정보망**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통해 주로 정보를 얻는다. 자주 찾는 사이트는 [www.makeupandbeautyblog.com](http://www.makeupandbeautyblog.com)과 [www.musingsofamuse.com](http://www.musingsofamuse.com).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많고 글도 재미있어서 읽기 쉽다. **K-Beauty에 대해** 2년 전 서울에 갔을 때 명동의 뷰티 브랜드 매장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에바 록산느 | 미국**  
[www.spatravelgal.com](http://www.spatravelgal.com)  
[instagram @ spatravelgal](https://www.instagram.com/spatravelgal)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트유티터를 하다가 4년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스파와 여행을 좋아해서 관련된 글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블로그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스파와 여행, 새로운 스킨케어에 대한 경향이 시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겁다. **블로그의 강점** 구글 검색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화장품 평가 기준** 제품을 테스트할 때는 그 제품을 써야 하는 정확한 이유와 어느 부위에, 언제,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그런 점에서 눈가와 얼굴에 바르는 제품은 손목에 바른고 테스트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추천 뷰티 아이템** 블랑테스티(Blantastic)의 립밤은 늘 가지고 다닌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며, 파라벤이나 화학성분 대신 비옥산 등 안전한 성분이 들어 있다. 케이트 서머필드의 에이치 여레스트 안티에이징 크림 포 센시티브 스킨은 민감한 피부뿐 아니라 보통의 피부도 건조함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봄에 닿으면 활상화되는 쌀 효소 파우더를** 함유한 더마로자키의 마이크로폴리언트는 피부를 부드럽고 투명하게 한다. **추천하고 싶은 스파 여행할 때** 따로 시간을 내서 호텔에 있는 스파를 방문한다. 호텔 스파에는 품질이 좋은 화장품이 많고, 테스트를 제대로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가본 곳 중 인상적인 스파는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 위치한 허버 비치 메리어트 리조트에 있는 스파였다. 고객에게 완벽하게 맞춤 스킨케어 제품을 제공하는 스킨 전문가가 상주해 있고, 소금과 스크럽제, 허브, 오일, 향을 모두 고를 수 있다. 올해 가장 기대되는 스파는 독일 바덴바덴 지역에 자리한 브레너스 파크 호텔 앤 스파다. 사물리 제품을 이용한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인 미국 애크런타에 있는 우 스킨케어(Moo Skincare)도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다. 관심 있는 뷰티 브랜드 영국의 스킨케어 브랜드 렌(REN), 천연성분으로 만든 자연주의 브랜드 중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 제품이다. 런던을 여행하던 중 주메리아 호텔 객실에서 처음 사용해보고 트라볼 사이즈를 구매해 사용한 뒤로 런던에 갈 때마다 구매한다. 특히 하이더라 캄 글로벌 프로텍션 데이 크림을 가장 좋아한다. 2014년 **봄/여름 뷰티 트렌드** 헤어와 메이크업 모두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트렌드가 될 것 같다. **좋아하는 뷰티 스페셜리스트** 케이트 모스, 나옴이 캠프, 레이첼 와이즈 등 셀러브리티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다니엘 샌들러. 메이크업을 통해 집지모델이나 여배우처럼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기보다 각자의 얼굴과 나이에 맞게 최상의 상태로 연출하는 것이 여자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그의 철학에 공감한다. 그의 이름을 딴 다니엘 샌들러 코스메틱은 자나치지 않게 절고 섹시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뷰티 정보망** 모바일 뷰티 쇼핑 앱인



프림프(Pretty in My Pocket, PRIMP)를 매일 확인한다. 신제품에 대한 정보와 사용후기, 뷰티와 패션 스타일, 최신 뷰티 뉴스와 트렌드를 바로 볼 수 있다. 프림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화장품과 트렌드, 뷰티 팀을 공유한다. **K-Beauty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BB크림의 인기가 시작된 곳이 한국이라고 들었다. 린트처링 입술에 그라데이션하는 메이크업 팀이나 혁신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크리스틴 밀케 | 미국**  
[www.temptalia.com](http://www.temptalia.com)  
[instagram @ temptalia](https://www.instagram.com/temptalia)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새로 산 화장품과 그 제품들로 화장한 모습을 자신들과 공유하기 위해 2006년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예상외로 큰 호응을 얻었다. **블로그로 신다는 것** 뷰티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교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흥수처럼 쏟아지는 신제품 속에서 사람들이 덜 고민하고, 더 만족스러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보람을 느낀다. **블로그의 강점** 제품 사용후기나 신제품 출시 정보가 풍성하다. 작년에 올린 제품 사용후기는 2천여 개에 달한다. 추천 제품 목록 카테고리에 가면 자세한 제품 정보와 후기를 접할 수 있다. 소개하는 브랜드의 종류와 제품의 가격대를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블로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뷰티 브랜드와 협업을 할 기회가 많아 트렌드와 신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할 수 있다. 2014년 **봄/여름 뷰티 트렌드** 아름답고 빛나는 피부, 깨끗한 눈썹, 새틴처럼 섬세한 텍스처, 파우치 속 아이템 수경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립밤만 들고 다닌다. 하루 종일 밖에 있는 날에는 테스트해볼 립 제품을 들고 다닌다. 뷰티 팀 앤 애플 같은 노 메이크업이 트렌드라고 하지만 모델이 아닌 이상 멋져 보이기 힘들다. 린티드 모이스처라이저로



피부톤을 고르게, 피부결을 촉촉하게 하고, 미스카라와 아이브로 제품으로 눈매와 눈썹을 도렷하게 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화장품 쇼핑 장소**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매한다. 세포라와 노드스트롬 백화점, 알타(ULTA)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물을 추천하고 싶다. **뷰티 정보망** 지금은 고민이 없지만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사진작가였던 케빈 어코인의 책을 즐겨 본다. (Making Faces), (Face Forward) 같은 책은 사진도 아름답고 흥미로운 내용도 많다.





**담쓰 | 한국**  
*blog.naver.com damsluv*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처음에는 디자인 자료와 뮤직 영상 수집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다. 관심사가 점점 뷰티 쪽으로 옮겨가면서 화장품 정보의 비중이 커져서 뷰티 블로그로 전향해 6년째 운영하고 있다. **블로거로 산다는 것** 출시 전 제품들을

미리 써보고 제품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뷰티 블로거로 사는 즐거움 중 하나다.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블로그 사전 테스트를 통해 나의 의견이 제품개발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브랜드와 소비자의 중간 위치에서 의견을 전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긴속 제품 테스트를** 하더라도 트러블이 나거나 하면 속삭이기도 하지만, **블로그의 강점**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 향기나 질감에 대한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관적 개입할 수밖에 없다. 사용후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자료를 정확하게 찍어서 올리고 있다. 작년부터 제품을 바른 결과를 더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흑백사진 톤을 개발해 사용후기를 올릴 때 활용하고 있다. 립 제품은 손등과 입술에 바른 것과 모델이 바른 광고컷, 브랜드 홈페이지에 올라온 컬러칩의 색을 두루 비교해서 색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해서 올려 호응이 높다. **스킨케어 제품 후기**에는 제품의 특징과 성분, 질감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피부 타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올려 화장품 구입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화장품 평가 기준** 화장품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은 비교 테스트인 것 같다. 제품의 특징을 고려해 비교 항목을 정하고 각 항목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각각의 제품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가릴 수 있다. 화장품이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기보다 누구에게 맞겠다 맞지 않겠다고 평가한다. TV나 잡지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도 참고한다. **추천 뷰티 아이템** 라노립스의 101 오인트먼트는 성분도 안전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발라본 립밤 중 가장 촉촉한 제품이다. 입생로랑의 누드 틴트 105호는 누드 색상이지만 투명한 필이 들어 있어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인다. 키스미의 마스크라는 몇 년째 재구매하는 제품이다. 그동안 수많은 마스크를 테스트해보고 이만한 제품을 찾지 못했다. 질리 같은 질감이 독특하고 발색력과 촉촉함, 지속력까지 두루 갖춘 맥의 허거블 립스틱도 추천한다. **화장품 쇼핑 장소** 매달 20여 개의 신제품을 사용하는데 주로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한다. 온라인으로는 거의 구매하지 않는다. 최근 뷰티 브랜드의 팝업스토어가 자주 열리는데,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뷰티 클래스나 1대1 메이크업 서비스, 다양한 이벤트 등을 접할 수 있어 자주 찾는다. **관심 있는 뷰티 브랜드** 입생로랑, 작년에 내한한 미란디 커뷰어 올해 전자현과 이연희 모두 입생로랑 제품을 사용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색상이 예쁘고 제품력도 좋아 관심을 갖고 있다. **2014년 봄/여름 뷰티 트렌드** 반짝이는 광택보다는 피부결을 자연스럽게 살리는 피부표현이 주목받을 듯하니 피부 본연의 결과 윤기를



살릴 수 있도록 스킨케어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좋아하는 뷰티 스페셜리스트** 맥의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변영숙, 뷰티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뷰티 브랜드의 클래스를 다녀왔지만 그녀만큼 트렌디한 메이크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없었다. 다양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에너지도 그녀를 빈번한 빈 방문객으로 만든다. **뷰티 정보망** 스타일닷컴, 카페뷰티더룸, 일본의 화장품 리뷰 전문 사이트인 www.cosme.net.



**유진상 | 한국**  
*blog.naver.com yujinlub, facebook a yujinlub*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정상껏 바른 네일 아트를 지우기가 어려워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블로그의 강점** 네일 아트 전문 블로거라는 점, 네일 아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부터 중급, 고급 단계의 정보까지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매주 수요일에 새로운 네일 아트 강좌를 올리고, 나머지 요일에는 네일 제품 발색이나 기타 화장품 사용후기를 올린다. 현재 소개한 강좌만 100회가 넘는다. **화장품 평가 기준** 브랜드보다는 화장품의 성분을 자세히 살펴본다. 파라벤이나 안광방부제 등 유해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피하는 편이다. 피부가 복합성이라 복합성 피부에 맞는 제품을 많이 소개하는데, 유수분 균형을 잘 맞춰주는지, 바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촉촉한지, 피부 속이 멍기는 현상은 없는지, 다음 날 피부상태가 어떤 지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추천 뷰티 아이템** 건조가 빠르고 광택이 좋은 세쉬(Seche)의 톱코트, 손상된 손톱의 빠른 회복을 돕는 반디의 네일 영양제, 사랑스러운 코랄 핑크 네일 에나멜인 에씨의 플러자 스위트, 농도가 적당하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며 자극이 적은 더마티스의 인텐스 크림, **관심 있는 뷰티 브랜드** 해외 네일 브랜드 중에는 에씨와 조야, 국내 네일 브랜드 중에는 골로리를 좋아한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지만 희소성이 높은 컬러가 많다. **2014년 봄/여름 뷰티 트렌드** 최근



펜톤에서 올해의 컬러로 라벤더 꽃잎을 닮은 라디언트 오크드를 선정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파스텔 톤에 화색빛이 가미된 채도가 낮은 색상이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하고 싶은 뷰티 스타트** 최근엔 윤을 더드럭 스토어인 립스, 드럭 스토어와 로드숍을 통틀어 가장 많은 네일 제품을 보유한 곳이 아닐까 싶다. **뷰티 정보망** 네이버 카페 여우야, 네일에 대한 정보는 <Nail Up>, <Nail Max>, <Nail Venus> 등 일본의 네일 전문 잡지에서 주로 얻는다. 네일 아트 과정을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사진과 설명이 잘 나와 있고 네일 아트 팀이 풍부해서 배울 게 많다.



**하코냥 | 한국**  
*blog.naver.com weinnie*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2008년 메이크업 아카데미에서 메이크업을 배우면서 그날그날 배운 메이크업 지식과 자료와 블로그에 하나둘씩 올린 게 시작이었다. 지금은 프리랜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블로그의 강점** 메이크업 하우투를 최우선으로 다룬다. 메이크업에 사용한

제품 정보는 가능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한 색상을 이용해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이다. 블로그를 보고 연습하면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메이크업 팁을 소개한다. 블로그에 소개하는 제품은 협찬을 받지 않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해서 사용후기를 올린다. **화장품 쇼핑 장소** 백화점과 드럭 스토어, 로드숍이 모여 있는 명동 일대를 두루 다니며 매달 새로운 제품은 가능한 모두 테스트해본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쇼핑 장소는 드럭 스토어인 것 같다. 유능한 MD들이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발굴해 꾸준히 입점시킨다면 드럭 스토어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지지 않을까? **화장품 평가 기준** 먼저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평가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지 판단한다. 화장품에서 품질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으니까. **관심 있는 뷰티 브랜드** 아르데코의 아이섀도우와 블러셔, 가격대비 발색력과 지속력 모두 훌륭하다. 성능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여러 색상의 아이섀도우를 구입해 다양한 메이크업에 활용하고 있다. **추천 아이템** 디올의 5 폴리오 디자이너 708호 엠버 디자인, 코스메 데코르테의 립스틱 PK859, 맥의 아이섀도우 쇼브. **2014년 봄/여름 뷰티 트렌드** 핑크의 전성시대기 다시 돌아올 맥의 아이섀도우 쇼브.



예정, 투명하고 맑은 피부표현과 여러여러한 분홍빛 색조로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하면 좋겠다. **좋아하는 뷰티 스페셜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이며 사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던 피터 필립스, 화장품 광고의 경우 보통 아름다운 모델을 등장시키는데, 화장품을 이용해 로또로 꾸민 사설 광고를 보고 혁신적인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다. **뷰티 정보망** 매달 국내외 여러 매거진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메이크업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얼루어>를 몇 년째 정기구독하고 있다. 매 시즌 컬렉션 북도 꼼꼼히 챙겨 보는 편이다.



**베로니카 프라홀라 | 아르헨티나**  
[fruticiema.blogspot.kr](http://fruticiema.blogspot.kr)  
[instagram @fruticiema](https://www.instagram.com/fruticiema)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아르헨티나에는 스킨케어 제품에 초점을 맞춘 블로그가 거의 없었다. 입생로랑 뷰티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면서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했고, 블로그를 통해 여성들에게 화장품을 고르는 법과 피부관리법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었다. **블로그로 산다는 것** 새로운 제품을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 때로는 비판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평가를 하거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좀 어렵다. **블로그의 강점** 신제품에 대한 정확한 사용후기. 후기를 올리기 전에 가능하면 제품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써본다. 후기를 쓸 때는 스킨케어 제품에 함유된 성분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스킨케어 전문가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값비싼 화장품이 누구에게나 잘 맞는 건 아니니까, 피부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을 위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뷰티 스텝' 카테고리도 자랑거리다. **화장품 평가 기준** 화장품의 성분과 질감, 사용 연령층을 기준으로 각각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한다. 화장품 전문 사적을 통해 공부하고, 다양한 뷰티 전문가들로부터 얻는 정보가 도움이 된다. **화장품 쇼핑 장소** 아르헨티나는 세간 규제 때문에 해외 구매대행이 어려워져 주로 매장에 직접 둘러 구입한다. 자주 찾는 브랜드 매장은 입생로랑과 아르헨티나 브랜드인 리데르마(Lidherma). 관심이 있는 뷰티 브랜드 카탈,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입생로랑과 더불어 꾸준히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관심이 간다. 2014년 **봄/여름 뷰티 트렌드** 2014년 여름에는 강렬한 립 컬러와 광채 피부, 네일 아트가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뷰티 아이템** 카멜의 미드나잇 리커버리



컨스트레이트, 랑콤의 제니피코, 바이오더미의 센서비오 H2O 클렌징 워터. 최악의 제품은 없다. 단지 나에게 맞지 않을 뿐. **뷰티 정보망** 바버 브라운과 폴라 비가우의 저서. 자세한 정보와 멋진 팁을 제공한다. 미국 <얼투어>의 편집장 린다 웰스가 쓴 <Confessions of a Beauty Editor>란 책도 좋아한다. **K-Beauty에 대해** 한국 여성들이 피부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한국 여성의 피부관리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설하수의 욕망팩을 선물 받아 사용해보니 좋았다.



**일본 아줌마 | 일본**  
[blog.daum.net japaneselady](http://blog.daum.net/japaneselady)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첫눈에 반한 일본인 남편과 7년을 연애하고 결혼해 현재 일본에 살고 있다. 2007년 처음 일본에 와서 향수를 달래고자 화장품 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다가 블로그를 시작했다.

메이크업과 요리를 좋아해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연재하다 운 좋게 <미 워너비 메이크업 북>이라는 메이크업 책과 요리 책까지 펴내게 됐다. **블로그의 강점** 처음부터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의뢰를 달래고자 했기에 편하게 이어져서 놓다 갈 수 있는 동네 언니 같은 블로그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혼자 농담도 하고 댓글이 올라오면 수시로 답도 달고 설명도 한눈에 속습 일하게끔 쉽게 쓴다. 메이크업을 워낙 좋아해서 메이크업 팁을 올리는 데 가장 공을 많이 들인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메이크업을 시도하면서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 배우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 **블로그를 보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화장품 평가 기준** 브랜드에 대한 편견 없이 꾸준히 사용해보고 제품의 특징이 명확히 느껴질 때마다 바로바로 메모를 해둔다. 한두 번 발랐을 때는 몰랐던 특징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 사용하고 후기를 쓴다. **추천 뷰티 아이템** 히다리보의 고쿠루로센 라이트 촉촉하지만 끈적이지 않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 가격도 착해서 일본에 와서 몇 년째 쓰고 있다.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는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하기에 좋다. 샤넬의 르 리프트 크림은 안티에이징 크림은 무겁다는 편견을 깨는 제품이다. 기름지지 않지만 촉촉하고 흡수가 빨라 밀리지 않는다. 2년 전부터 1년간 사용해본 제품 중 자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을 꼽아 '라보코스메틱 어워드'로 선정하고 있다. 작년에 뽑힌 제품 중 하나를 고르려면 사세이도의 파운데이션 퍼펙트 브러쉬 13을 꼽고 싶다. 촉촉한 평면 브러시가 브러시 자국이 거의 생기지 않아 초보자도 사용하기 좋고, 이 브러시를 이용하면 피부에 윤기가 생긴다. 가격도 1천엔밖에 안 된다. **화장품 쇼핑 장소** 마스키나 아이리너 같이 굳이 비싼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을 때는 드럭 스토어에 자주 가고 파운데이션이나 아이섀도, 기초제품은 매장에서 사용하고 외국에 나갈 때 인터넷 연세정을 통해 구매한다. **관심 있는 뷰티 브랜드** 메이크업 포에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쓰는 제품이라 그런지 품질이 뛰어나다. 샤넬은 모든 여자가 반할 만한 아름다움 색깔을 지녔다. 2014년 **봄/여름 뷰티 트렌드** 차분한 화사함이 아닐까 싶다. 분홍색이라도 핑크보다는 톤 다운된 옅은 분홍색, 화사하지만 차분하고 여성스러움이 뽐낼 느끼지는 색상이 트렌드가 될 것 같다. 좋아하는 뷰티 스페셜리스트 여자 아이돌을 스타들. 새 앨범에 맞춰 의상과 메이크업 스타일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화장법을 배울 수 있고 따라 해보는 재미도 있다. **뷰티 팁** 피부가 건조한 겨울에는 알코올 함량이 적거나 없는 보습 토너를 활용한다. 화장수에 토너를 적셔서 얼굴 전체에 붙이고 3~5분 뒤에 떼어내면 피부가 환하고 촉촉해진 느낌이 든다. 토너는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고 붙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일 해도 피부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토너를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톡톡 두드리듯이 바르고 흡수가 다 되면 반복해서 토너를 바른면 크림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피부의 촉촉함이 오래간다. **파우치 속 아이템** 손이 건조한 편이라 핸드크림은 꼭 챙기고 그날 바른 립스틱과 파우더 팩트만 파우치에 담는다. 눈 화장이 진할 때는 수정 메이크업을 위해 작은 통에 담은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면봉을 추가로 챙긴다. 마스키나 아이섀도도



변했을 때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묻힌 면봉으로 눈 밑을 닦으면 번진 화장을 닦아냄과 동시에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밀착돼 화장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뷰티 정보망** 신제품 정보는 일본의 뷰티 전문 웹사이트인 잇토 코스메를 이용하고, 메이크업과 헤어에 관한 노하우는 스타들을 보고 직접 따라 해본다. **블로그** 사람의 리퀘스트 코너에서 따라 하고 싶은 스타 메이크업 신창을 받아 올리기도 한다. 일본 뷰티 전문 잡지인 <비티>도 즐겨 본다. **에디터** | 조은선, 어시스턴트 | 여소현, 차민주



**나딘 졸리 | 미국**  
[www.nadinejolie.com](http://www.nadinejolie.com)  
[instagram @nadinejoliecourmey](https://www.instagram.com/nadinejoliecourmey)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2005년 뉴욕에서 잡지사의 뷰티 에디터로 일할 때 블로그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친구들에게 뷰티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뷰티 업계의 이면처럼 일들을 이야기하는 통로였다. 블로그를 찾는 팬들이 수천 명이 되었고, 블로그가 미국 전역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뷰티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뷰티 전문 블로그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블로그로 산다는 것** 뷰티 에디터와 뷰티 블로거는 신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제품을 써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직업이지만 반대로 단점이 되기도 한다. 피부가 민감한 편인데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테스트하다 보면 피부가 더 예민해진다. 기공은 내게 잘 맞는 한 브랜드 제품만 쓰고 싶기도 하다. **블로그의 강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한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새로운 뷰티 브랜드나 뷰티 스팟에 대한 글도 자주 올린다. **관심 있는 뷰티 브랜드** 유기능으로 재배한 식물성분을 담은 아말라(Amala)를 좋아한다.



스위스에 갔을 때 추천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몇 년간 사용해본 제품 중 가장 좋았다. 특히 색소침착을 개선하는 라인은 강한 화학성분 대신 자연성분을 사용해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다. **추천 뷰티 아이템** 무인도에 베이시 메이크업 제품을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베어 에센츄얼스(Bare Escentuals)의 베어미네랄스를 선택할 것이다. 민감해서 쉽게 붉어지는 피부를 결정 하나 없이 부드럽고 쏠쏠 피부로 만든다. **파우치 속 아이템** 컬링 효과가 좋은 마스카라, 브론즈와 그레이트 아이섀도, 블랙 아이리너와 아이섀도.